

초언어학과 소설교육의 지향점 연구

선 주 원 (한국교원대 박사과정)

< 차례 >

- I. 서론
- II. 초언어학과 소설담론
- III. 소설담론의 대화성
- IV. 초언어학 관점에서의 소설교육의 지향점
- V. 결론

I. 서론

오늘날은 정보의 대량 복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남들이 누리는 만큼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한정 다운받을 수 있다.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전통적 관점에서의 교육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 사회의 이러한 변화 속에 전통적 방법에서의 교육, 즉 제도권에서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간다. 그러나 교육이 장기간에 걸쳐 내재적인 행동의 변화를 그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러한 우려와 회의는 일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겠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교육이념 아래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내용 등을 일련의 계획과 절차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의 총체적인 효과를 위해 가장 우선 되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념에 의해서 목표, 내용, 방법 등 모든 것이 추출되어 나오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이념은 추상적인 개념 규정으로서, ‘왜 교육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표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회가 이상적인 인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그로부터 교육내용의 체계가 도출되어 나온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을 보는 관점은 구체적인 역사적 과제, 사회적 현실과 조응하는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인간형에 대한 기획의 결과 제시된 것이다.¹⁾

이런 관점에서 문학교육에 접근해 본다면, 교육의 하위 항목인 문학 교육의 목표도 문학교육의 결과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형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을 보는 관점을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듯이, 문학교육 결과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형도 단일한 틀 안에서 규정하기보다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문학교육의 기본 자료인 문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원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²⁾이 문학주체이고, 문학주체 중에서도 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문학교육의 결과 도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전체 문학교육 구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자아 계발을 위한 문학교육을 목표로 할 때에는, 문학교육의 결과 형성될 ‘바람직한 문학주체’의 개념에 대한 정치한 이론화와 의미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문학교육에서는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차원에 치우친 결과, 창작교육이라든지, 가치관의 내면화 문제,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문학교육 등을 홀대해 왔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학주체’에 대한 의미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론화도 크게 보여주지 못했다. 문학작품

1) 우한용 외(1997),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67-69쪽.

2) 문학교육에서의 변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문학교육과정론』(우한용 외(1997), 삼지원)의 93-133쪽을 참고하기 바람.

의 이해와 감상이 인지적 영역인 문학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정의적 영역으로 설정하고서, 그 구체적인 이해와 감상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은 문학현상으로서 작동하고, 문학교육도 문학교육현상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반드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치관의 내면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문학은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의미작용의 실현으로 보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이는 문학을 역동적인 작용태, 혹은 기호론적 실천이론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것이다.³⁾ 문학이 언어적인 구조물로서 여겨질 소지는 그 매재가 언어이기에 가능한데, 문학의 매재로서의 언어는 랑그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와 상대자가 고려된 담론(discourse)의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담론 차원에서 실현된 문학을 문학현상으로서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교육도 단순히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자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문학교육적 메커니즘을 통해 학습자의 가치관 변모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학교육은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학교육은 학교현장에서의 문학교육으로 그 성과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교육 현상으로서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학교육현상을 통해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은 ‘문학능력의 증진’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능력의 증진’을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한다면, 문학교육의 방향은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학교육을 학습자의 삶의 양태와 관련을 맺게 하며,

3) Tzvetan Todorov, 최현무 옮김(1987),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39쪽.

4) 우한용 외(1997),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08-111쪽. ‘문학능력’의 개념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과 『문학교육론』을 참고하기 바람.

학습자의 문학문화의 고양을 지향하게 한다. 따라서 문학문화의 고양을 위한 문학교육은 필연적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고찰을 요구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문학교육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자들로는 구인환 외, 김중신, 김대행 외, 우한용, 정재찬 외 등이 있다⁵⁾.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문학교육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문학교육의 지향점을 ‘문학 문화의 고양’으로 설정하고서, 문학교육을 문화 장(場)에서의 실천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바람직한 문학 주체’의 형성을 문학교육의 최종적인 도달점으로 상정하고, 문학주체가 문화적 실천 양태인 문학텍스트, 특히 소설텍스트를 이해·해석·평가하는 가운데, 어떻게 가치관의 내면화를 이루어 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문학을 어떤 하나의 모델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일면성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느 하나의 관점을 보다 정치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전제하에 본 논문은 바흐친의 초언어적 관점을 원용하여 의사소통으로서의 소설교육을 문화실천 및 재생산의 틀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교육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소설교육도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과정으로서 문화실천의 한 양태이며, 의사소통 행위로서 문화주체들에 의해 규정받으며 또 그 주체들을 규정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교육은 초언어학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으로서 소설교육이 되어야 한다.

II. 초언어학과 소설담론

-
- 5) 구인환 외(1988), 『문학교육론』, 삼지원.
 김중신(1997),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재찬 외(1997),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인간의 행위는 나의 것 뿐만 아니라 타자의 것도 사물(즉자적인 대상으로 주어질 수 없고 단지 자신에게, 그리고 타자에게 가치가 있는 기호를 통한 표현, ‘텍스트’를 통한 실현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기호는 주체간의 상호주관성의 과정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기호적인 내용이 되므로, 한 개인 주체의 개인의식은 기호로 채워지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된다.

이데올로기 기호는 사회적 시야에 따른 기호의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가치평가적 액센트를 갖게 된다. 이데올로기 기호는 상호주관성의 장(場), 즉 사회의 장에서 창조되며, 한 주체는 자신이 다른 주체와 공유하는 의미를 이 장에서 획득하여 기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한 대상만이 이데올로기적 영역 안에 편입되어 형태를 갖추게 되고, 사회적 가치평가의 액센트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이데올로기상의 액센트는 사회적인 액센트이며 동시에 ‘사회적 승인’을 요구하고, 그러한 승인에 의해서만 이데올로기 기호로서 물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기호의 의사소통 역할이 가장 명료하고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언어(말)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회적 상호관계(의사소통)의 가장 순수하고 결정적인 매개체이며, 가장 훌륭한 이데올로기 현상(혹은 현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호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이데올로기적 현상이 가장 잘 발현되는 것은 언어(말)라는 매개체인 것이다.

바흐친은 언어와 담론의 관계를 초언어학적 입장에서 설명한다⁶⁾. 그

6) Metalinguistics를 토도로프는 ‘Translinguistics’로 영역했는데, 이를 김옥동은 ‘초언어학’, 이득재는 ‘반언어학’이라고 번역했다. 일반적으로 독백적인 발화유형을 주장하는 일반언어학에 비해, 바흐친이 상정하는 언어학이 대화적인 발화 유형을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흐친식의 언어학을 ‘초언어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초언어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메타언어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메타언어학은 ‘언어에 대

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에 대비되는 사회언어학으로서의 초언어학을 상정했다. 소쉬르는 언어를 랑그와 빠롤로 나누면서, 빠롤은 개인적이고 우연적이므로 언어학은 빠롤을 제외한 랑그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적 입장은 랑그의 언어학적 요소와 작품의 구성적 요소가 당연히 일치한다는 전제를 가정하지만, 그 두 개의 현상은 상이한 지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흐친은, 언어는 어떤 법칙성(랑그의 측면)으로 환원되는 '구심력(보편성)'과 함께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개별성)'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빠롤을 랑그의 실현인 동시에 원심력의 측면도 또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빠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단순한 우연성과 개인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이데올로기의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원심력과 구심력의 운동 속에서 담론(빠롤)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바흐친은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언어의 파롤적 측면을 '담론'이라고 불렀다.

수단의 체계로서의 랑그와는 달리 담론(빠롤)은 담론들을 종합하는 잠정적이고 단일화된 담론 유형이 없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게 번역될 수 없다. 담론들은 끊임없이 상황맥락에 의해 변화해 가는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재생산의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⁷⁾.

언어가 갖는 의사소통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야콥슨과 바흐친의 의사소통 모형을 살펴보자⁸⁾.

한 언어'로서, 예를 들면 '푸르다는 형용사이다'라는 용법에서처럼 의미구성으로서의 발화 의미보다는 일차적인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이차적 언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기 때문이다.

7) 본 논문에서는 '소설담론'을 논하는데 있어서 텍스트와 담론을 동일 층위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텍스트란 고정되고 폐쇄된 체계가 아닌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체계로서, 독자들이 무한히 의미생산을 이루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언술과 담론을 언어학적 차원에서 유사의 미로 사용한다.

8) 미하일 바흐친, 최현무 옮김(1988), 『바흐친: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85쪽.

(야콥슨)	(바흐친)
맥락	대상
발신자 - 전언 - 수신자	발화자 - 언술 - 청취자
접촉	상호텍스트
약호	랑그

야콥슨과 바흐친의 의사소통 모형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야콥슨은 접촉을 독립적 요소로 분리시키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바흐친은 다른 언술들(츠베탕 토도로프의 용어로는 ‘상호텍스트’)과의 관계를 발견하는데, 이것은 야콥슨의 모형에는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순전히 용어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야콥슨이 사용하는 언어학적이고 기호론적인 용어들은 좀더 일반적인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맥락”과 “대상”은 “지시대상”에 상응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보다 근본적인 대립을 나타내준다. 야콥슨은 이 개념들을 “모든 언어적 사건, 모든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의 구성적 요소들”⁹⁾을 묘사하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바흐친은 두 개의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했고, 그것들의 근본적 차이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과 바흐친의 초언어학이 보이는 차이에 상응한다. 바흐친의 의사소통 모형은 랑그에서 담론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발화자와 수신자에게 공통되는 지평의 존재를 감안하는 것이다. 담론의 현실은 발화자와 수신자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데, 발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담론의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랑그가 하나의 약호인 이유이며, 또한 바흐친이 “접촉”을 다른 요소들 중의 한 요소처럼 분리하지 않는 이유이다. 담론은 대상과 획일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단순히 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며 상황을 변모시키거나 해결한다.

이와 같은 바흐친의 의사소통 모형에 의한다면, 언어는 인간을 구성

9) R.야콥슨, 신문수 편역(1989),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229쪽.

하며, 또한 언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언어의 축조로서 의미의 생산과 수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단어의 ‘의미작용’과 이 의미작용을 타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리적 조직체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여러 개의 조직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모든 언술(speech) 행위에서 언술의 상대자는 언술의 의미형성에 참여하며, 이는 마치 발화의 맥락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다른 요소들이 언술의 의미형성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어떤 언술도 단 한 사람의 발화자에게만 속할 수는 없으며, 언술은 이야기 상대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더 넓게는 언술이 발현되는 모든 복합적인 사회적 상황의 결과이다¹⁰⁾. 그러므로 발화의 맥락은 언술의 전체적인 의미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 맥락은 그 자체로 반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성격을 지닌다. 즉, 언술은 역사적으로 유일하고 개인적인 반복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실체들(언술)은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재생산되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는 대화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이데올로기적 기호로서의 언어는 사회체계와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특유한 가변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화를 적절한 의미에서, 즉 특별히 주어진 상황맥락 속에서 발화가 갖는 지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지향은 형성되어 가는 동적인 과정에서의 지향이지 정태적인 상황에서의 지향은 물론 아니다¹¹⁾. 그러므로 일상 생활언어 층위 뿐만 아니라 소설담론을 둘러싼 작가(화자)와 독자(청자)의 언어의식은 주어진 소설담론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맥락의 총체라는 의미에서 규정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소설담론이 문헌학적인 궁극적인 실체, 혹은 정전(canon)으로 간주된다면 소설담론은 죽

10) M.M.Bakhtin, Translated by Ven W.Mcgee(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University of Texas Press, 60쪽.

11) 생성과정 중에 있는 언어형태에 대한 이해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맥락으로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주체의 층위에서는 발화의 진위문제가 아니라 타자의 발화가 갖는 개인의식에의 침투라고 할 수 있다.

은, 추상화된 담론이 될 것이다. 이는 소설의 담론을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의 형태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 랑그의 관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리 능동적인 응답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서 담론을 이해하는 수동적인 이해의 잘못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소설담론을 동일성이라는 요인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바흐친이 상정한 초언어학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호(언어)를 전제한다. 그리고 언어를 통한 이데올로기상의 액센트는 각 사회계급의 방언, 어법 등의 각기 고유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상이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교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교차에 의해서 이데올로기 기호로서 기호가 갖는 사회적 가치평가의 액센트는 복수성을 갖게 되며, 이 복수성에 의해 기호는 생생하고 활동적이며 변화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로서의 기호(언어)는 그 구성방식에서 상호주관적(사회적)이며, 이 특성은 인간에게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개성은 그가 속한 사회계급 속에서, 그 사회계급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부분으로서만 역사적으로 사실적이며, 문화적으로 생산적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주체는 일련의 연속적인 이데올로기적 현상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회학적인 현상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로서의 기호가 갖는 액센트를 사회계급과 관련지어 논의한다면, 지배계급은 이데올로기 기호에 대해 초계급적이며 무한히 영속하는 성격을 부여하고자 할 것이며, 기호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평가에 관한 투쟁을 근절시키고 기호에 단일한 액센트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다.

모든 이데올로기 영역은 그 체계 전체가 토대의 변화에 반응하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이며, 이데올로기 기호는 제각기 질료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현실의 존재(토대)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호를 규정하는 방식과 이데올로기로서의 기호가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굴절시키는 방식은 문학 연구, 특히 소설 연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상의 가치

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 결정적인 좌표 결정 인자는 물론 언어(말)이다. 말은 원리적인 수준에서 이런 문제를 조망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상이며¹²⁾, 순수한 기호가 아닌 현상으로서 사회와 그 구석구석까지 연관 관계를 갖는다. 말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행동과 접촉에 관련되어 있으며, 주체간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매개하고 이데올로기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언어(말) 그 자체가 곧바로 이데올로기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은 이데올로기에 대해 중립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말은 고정된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학, 미학, 윤리, 정치 등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상황맥락 의존성을 갖는다. 말이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은 개인의식의 매개체, 즉 의식의 기호적 실체(내적 발화)가 될 때이다. 내적 발화(내면화된 기호)로서의 개인의식은 말을 매개체로 하여 사회학적 기호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은 모든 이데올로기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그 활동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창조성의 모든 현상(모든 비언어적인 기호)은 말의 흐름에 둘러싸여 말속에 흘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론의 요소에서 분리될 수 없다. 물론 말(언어)이 다른 이데올로기 기호를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데올로기 기호들은 언어에 의해 기초지어진다. 따라서 생성·발전하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언어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굴절을 하게 된다¹³⁾.

주체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주체간의 대화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바흐친은 담론은 대화적 속성을 지니며, 그 ‘대화적’ 성격은 시보다는 소설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했다. 담론이 대화적이라는 것은, 어떤 담론이든 응답자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또한 담론의 대상 내부의 다른

12) M.M.Bakhtin, 송기한 옮김(198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훈겨레, 28쪽.

13) 바흐친에 의하면, 말은 기호적인 순수성, 이데올로기상의 중립성,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의 관여, 내적 발화로서의 특성, 의식의 모든 행동 이면에 수반되는 현상으로서 반드시 나타나는 일 등의 특성을 갖는다.(M.M.Bakhtin, 송기한 옮김(198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훈겨레, 25쪽.)

언어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구성됨을 뜻한다. 외견상 작가의 단일한 언어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담론들이 실상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담론과의 대화적 관계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대화성은 ‘상호텍스트성’(간텍스트성, *intertextuality*) 개념과 연결된다¹⁴⁾. 상호텍스트성이란, 어떤 한 텍스트는 동질성을 이루는 독립물이 아니라 많은 다른 텍스트들이 이질적으로 투입한 생태를 이룬다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아무리 독창적인 텍스트라 하더라도 그 텍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언어, 담론의 구성은 많은 다른 주체들의 이질적이고 불규칙한 개념과 담론의 혼성물로 이루어져 있게 된다. 텍스트를 ‘인용의 과정’으로 상정한 바르트의 논의는 바흐친의 대화주의 개념과 그 접점을 갖는다. 바르트에 의하면 텍스트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시니피앙의 다각적이고도 물질적·감각적인 성격에 의해 무한한 의미생산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¹⁵⁾. 이 열린공간은 바흐친이 상정한 대화적 담론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화적 담론만이 독자의 유희공간을 통해 무한한 의미생산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문학장르로서의 소설 장르는 계속적으로 변전하고 있으며, 아직 완결되지 않은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설 장르의 발생과 발달은 역사의 강한 조명 아래 그 골격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설 장르는 여러 장르들 중의 한 장르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사멸한 장르 가운데서도 여전히 새롭게 변전되고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장르들 사이의 사회적 제한 혹은 교체를 통한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관습적인 언어들을 파괴함으로써 다른 장르들을 제거하고 재해석하여 다른 장르들을 소설 장르 속에 통합한다. 이와 같이 소설이 다른 장르들을 소설화할 때, 다른 장르들은 좀더 자유롭고 유연해지며, 그들의 언어는 문학외적인 복수 언어주의와 문학 언어 속에 형성된 ‘소설적인’ 층의 도움으로 갱신된

14) 나병철(1997),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73-74쪽.

15)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8-10쪽.

다. 그 결과 소설화되는 장르들 사이에는 웃음, 아이러니, 패러디, 해학, 자기풍자 등의 대화적 관계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이 성립된다. 그리고 소설은 이 장르들을 문제화하고 특수한 의미론적 미완성을 끌어들이며 변전중인 시대현실과 생생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흐친은 소설 장르와 다른 장르들이 변별되는 세 가지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¹⁶⁾.

- 1) 소설 속에서 실현되는 복수 언어적인 의식에 관계된 삼차원적인 소설의 문체, 2) 문학적 표현들의 시간적 좌표에 따른 소설 속의 근본적인 변형, 3) 소설 내에서 일어나는 문학적인 표현들의 구조화의 새로운 지대로, 소설의 미완적인 국면에서 기인한 현재(현대성)와 최대한도의 접촉의 지대.

그러므로 소설은 완결되지 않은 현재의 일차적인 힘들과 접촉하며, 이것이 소설 장르가 고정되는 것을 막는다. 소설가는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모든 것과 접촉하며, 단지 재현에 영역에 인물로 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일차적인 작가(작가의 모습을 한 작가)는 그가 구상해 낸 세계의 재현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 이들은 동일한 시간적, 가치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재현해내는 작가의 담론은 인물의 재현된 담론과 동일한 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재현된 담론과 대화적 관계에 들어가고 뒤섞이게 된다. 재현된 세계와 접촉하는 지대 속에서 작가가 차지하는 새로운 지위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재현 속에서 드러나게 해준다. 이 새로운 상황은 서사적인(위계 질서적인) 거리의 제 거에서 기인하며, 작가는 독자, 상황맥락과 상호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과도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 윤리, 과학, 예술 및 종교 등의 확립된 이데올로기 체계들은 일상적 이데올로기의 결정(結晶)들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역으로 일상적 이데올로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미 정식화된 이데올로기적 산물들은 일상적 이데올로기와 끊임없이 유기적인 접촉을 하며,

16) 최현무, 앞의 책, 232-233쪽.

이를 통해 자양분을 얻는다.

물론 바흐친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일상적 경험과 이것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적 표현 전체로서의 일상적 이데올로기이다. 즉, 일상적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 그리고 의식적 상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비체계적이고 비고정적인 내적·외적 발화의 분위기이다. 이러한 일상적 이데올로기와 이미 정식화된 이데올로기적 산물의 생생한 접촉은 문학작품, 특히 소설담론에서 현저하다. 소설담론은 일상적 이데올로기의 언어를 매개로 해서 특정한 사회현실에 대한 가치평가적 액센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일상적 이데올로기는 소설담론을 특정한 사회맥락으로 이끈다. 따라서 소설담론은 변화하는 일상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만 하고, 일상적 이데올로기 속에 침투하여 그것으로부터 생생하고 역동적인 자양분을 획득해야 한다. 소설담론은 주어진 시대의 일상적 이데올로기와 끊임없는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그 존립이 결정된다.

그런데 소설담론이 일상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을 맺는 방식은 언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문화적 실천행위로서의 발화의 과정을 통해 규정된다. 소설담론에서의 발화(언술)는 담론이 행해지는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는 타자 지향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담론공동체의 총체적 사회적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소설담론은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실행의 모습을 띠 수밖에 없으며, 그 이데올로기적 실행은 사회적 구조에 의한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소설의 담론은 상황맥락과 동떨어져 독립된, 완결된, 폐쇄성을 갖는 독백적 발화로서의 담론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기호를 통한 소설담론의 체계는 살아 있고 역동적인 사회적 기능과 상호연관을 갖는 역사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소설담론은 내·외적 주체들이 상호연관을 갖는 이데올로기적 담론 구성체¹⁷⁾라고 할 수 있다.

17) 푸코는 담론 구성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일련의 언표들 사이에서 분산의 체계들을 기술할 수 있을 때, 대상들 사이에, 언표행위의 유형들 사이에, 개념들 사이에, 테마(전략)적 선택들 사이에 규칙성(질서, 상호관계, 위

소설담론은 주체간의 담론(언어적 발화)들 속에서 수행된 언어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사건이 된다. 소설담론이 갖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주어진 사회집단의 지속적이며 생생하고 구체적 상황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소설담론은 단순히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설담론은 담론 주체가 타자와 관계 맺는 경계선상 위에서, 즉 언어적 상황과 언어 외적 상황에서 타자와 맺는 접선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설담론의 이해 혹은 수용은 소설담론에 대한 진위의 가치평가 문제가 아니라, 타자가 수용 주체에게 영향 주는 침투의 정도에 대한 가치평가적 액센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침투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 공동체 내에서 수용 주체가 갖는 내적 발화에서 끝없이 흔적을 드러내며, 그 흔적들은 사회학적 상황과 타자의 존재를 전제할 때만 정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III. 소설담론의 대화성

언어의 실천적인 양상을 담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의 양상이다. 그리고 이 실천은 담론을 담당하는 주체에 의해서 수행된다. 주체는 담론의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 대화적 관계(분명한 외적 대화이든, 내적 대화이든지 간에)를 형성한다. 이러한 대화적 관계는 상호 응답성을 전제로 한다. 상호응답성은 물음과 물음에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쌍방적 행위 작용으로서 담론의 주체간에 상호규정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담론 주체간에 의미조정 과정을 통해 상호 지향의 이데올로기 지향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상호 지향의 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구조와의 관련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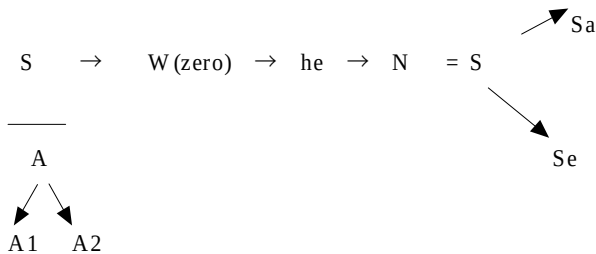
치와 기능작용, 변환)을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는 ‘과학’이나 ‘이데올로기’ 또는 ‘이론’이나 ‘객관성의 영역’과 같이 위와 같은 분산을 가리키기에는 부적절한 그리고 그 조건이나 결과에 있어 너무 무거운 말들을 피해서, 담론 구성체(formation discursive)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1992),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67-68쪽.)

게 된다. 그런데 담론 주체 간의 상호 응답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즉 내적 대화의 경우에도 응답성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담론 주체는 늘 타자를 염두에 두는 다성성을 내부의 목소리로 갖기 때문이다.

소설담론은 이데올로기적 기호로서의 언어를 매재로 하여 형상화된 다. 언어를 매재로 한다는 것은 언어가 갖는 속성인 이데올로기성을 소설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소설담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성은 소설담론 주체들의 실천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그 실천은 소설에 있어서는 담론 주체간의 상호작용, 즉 다성성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언어를 매재로 하는 소설담론은 언어가 갖는 속성에 의해 규정받는데, 언어는 추상적 구조체가 아니라, 언술에 주체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물이기 때문이다.

소설담론의 이데올로기성은 소설담론을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소설담론이 규정되고 실천되는 것이다. 또한 소설담론의 매재인 이데올로기 기호로서의 언어도 사회적 현실에 의해 규정된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와 실천에 의해 규정되는 이데올로기적 형식으로서의 소설담론은 그 소설담론을 통해 이데올로기성을 포착하고 실천하는 ‘주체’를 전제한다. 이 주체는 물론 소설담론을 실천하는 주체이기에 사회와의 연관성을 갖는 주체이다. 따라서 소설은 그 자체가 담론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며, 단순히 언어의 용법을 실현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실현의 양상이다. 왜냐하면 소설담론은 구조지향적 대상이 아니라 과정과 실천지향을 갖기 때문이다. 언어적 실천을 한다는 것은 담론 주체간에 이데올로기적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설은 소설텍스트를 내·외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체들의 담론적 연관성 차원에서 그 이데올로기적 실천들이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소설담론은 다층적인 담론의 주체가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언어적 실천을 이루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바흐친에 의하면 이러한 소설담론은 다성성에 의한 대화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다성성은 초언어학적 견지에서 볼 때 감성과 대화, 비권위적 관계에 의한 것으로 언어의 절대적

의미, 즉 언어와 의미가 법칙으로 합체되는 로고스적인 절대지식의 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¹⁸⁾. 소설담론의 대화적 관계는 소설담론의 주체들이 역할을 교환할 수 있고, 내적인 분화를 이루는데서 비롯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담론 주체의 분화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했다¹⁹⁾.



S : 서술의 주체

A : 서술의 수용자

A1 : 텍스트에 대한 기표 역할

A2 : 그 자신이 서술의 대상이 되는 기의 역할

W : (작자나 발화주체로서의 익명의 인물)

he : 작중 인물, 언술의 주체

N : 고유명사로 나타나는 아무개

Sa : 발화행위의 주체

Se : 언술내용의 주체

다시 강조하지만 소설의 언어를 담론(언술)의 차원에서 규정할 때, 중요사항은 그 담론의 실천성이다. 소설 담론의 주체들이 담론을 조직하고 의미공유와 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담론을 실천한다. 그러므로 소설 담론의 언어는 동적인 언어이며 실천의 언어가 된다. 따라서 소설은 단순한 기호론적 구조물이 아니라, 소설 외적 주체로서 작가와 독자

18)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이경훈 옮김(1994),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사, 34쪽.

19) Julia Kristeva(1980), *Desire in Language*, Basil Blackwell, 75쪽.

가 소설텍스트(담론)를 매개로 하여 대화하는 것이며, 이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미의 동일시와 비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동일시와 비동일시를 통해서 소설담론은 문학현상²⁰⁾으로서의 인식대상이 되며, 주체들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담론에 대해 바흐친이 상정하는 대화주의가 갖는 평가기준은 담론 주체들이 갖는 인식의 정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가 아니라, 표현하고 말을 하는 존재로서의 타자의 주체에 대한 침투의 깊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자는 주체와 결코 일치하지 않으며, 주체는 타자를 자신과 완전히 동화시키지 않은 채, 타자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일상적 담론에서 담론의 주체는 담론의 발신자인 화자와 수신자인 청자이다. 화자와 청자는 상황맥락의 공유를 전제하며, 이 전제 속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 약호의 체계, 스키마 등의 제한을 받으며 담론을 생산한다. 그러나 소설담론의 주체는 일상적 담론의 주체와는 달리 직접적 대면에 의한 상황맥락의 공유를 전제하지 않는다.

바흐친에 의하면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은 서술자, 피서술자의 단순한 개념의 주체가 아니다. 내적 주체들은 각자가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항상 타자를 의식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며, 이 타자성을 통해 각자의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목표는 ‘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타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타자성을 통해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은 자신의 의미영역(이데올로기 체계)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작가, 독자에게 영향을 준다.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이 작가, 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담론 체계를 통해 제 2의 독자로서 작가에게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촉발한다.

20) 문학 현상이란 문학이 우리의 삶과 문화(또는 교육)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일체의 과정과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즉, 문학의 존재와 소통은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문학텍스트가 생성되고, 문학텍스트 자체의 구조가 독자들에게 수용되고, 텍스트와 삶의 현실간에 반응을 드러내는 등 일련의 작용과정을 뜻한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사, 311쪽.)

그리고 독자는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을 자신의 인식 지평의 영역 내에서 이해·해석을 하지만, 내적 주체의 담론체계와의 상호소통과정을 통해 소설담론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 재생산을 소설교육적 차원과 연관시켜 말해 본다면, 학습자가 단순히 소설담론을 이해·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설담론의 인물들과 끊임없는 내적 대화(은폐된 논쟁, 혼성 등의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소설담론(해체적 관점에서 글쓰기)을 생산한다.

소설담론의 다성성은 담론 내적 층위에서 등장인물의 상호주체성을 통해 드러난다. 등장인물들은 계층적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특유한 고유성을 간직한 채, 타자들과는 변별되는 이질적 언어를 통해 소설담론을 구성한다. 등장인물들은 이질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담론 체계를 구성하면서 담론적 실천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소설담론은 담론 외적 층위로서 작가와 독자의 담론 뿐만 아니라, 내적 층위로서 등장인물들의 담론 체계도 소설담론 전체의 실천에 상호관련성을 갖는 다성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흐친은 소설담론의 층위를 내적인 대화관계와 조직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²¹⁾.

- 1) 화자의 최종적 의미상의 판단의 표현으로서 직선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대상을 향한 말
- 2) 객체화된 말(묘사된 인물의 말) - 객체화의 다양한 정도
 - 가) 강한 사회적 전형
 - 나) 강한 개인적 전형
- 3) 타인의 말을 지향하는 말(이중적 목소리의 말)
 - 가) 단일 방향의 이중적 목소리를 가진 말 - 객체화가 저하될 때 목소리들을 융합시키려 한다. 즉, 첫 번째 유형의 말이 되고 만다.
 - a. 양식화
 - b. 화자의 서술
 - c. 작자의 구상을 전해 주는 (부분적으로) 주인공의 비객체화된 말
 - d. 일인칭 서술

21) M.M.Bakhtin, 김근식 옮김(1988), 『도스토예프스키 詩學』, 정음사, 287쪽.

- 나) 여러 방향을 가진 이중적 목소리의 말 - 타자의 사상의 객체성, 작용력이 내적으로 대화화되고 제1유형의 두 말(두 목소리)로 분열되기 쉽다.
- a. 모든 뉘앙스를 가진 패러디
 - b. 패러디풍의 서술
 - c. 패러디풍의 일인칭 서술
 - d. 패러디풍으로 묘사된 주인공의 말
 - e. 타인의 말을 액센트를 바꾸어 전달하는 모든 말
- 다) 능동적 유형(반영된 타인의 말) - 타인의 말은 밖으로부터 작용한다. 타인의 말과의 가장 다양한 상호관계의 형식이 가능하며, 그 말을 탈형식화시키는 영향력의 여러 정도.
- a. 은닉된 내부 논쟁
 - b. 논쟁적으로 채색된 자서전과 고백
 - c. 타인의 말을 결눈질하는 모든 말
 - d. 대화의 응답
 - e. 속에 감춘 대화

바흐친은 소설담론의 유형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소설담론은 이데올로기의 실천태라는 초언어학적 관점을 상정했다. 이때 바흐친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태도나 의향 등으로 통해 드러나는 일상적 이데올로기이다. 일상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소설담론의 주체들은 늘 타자를 염두에 두는 타자성과 대화성에 의한 다성적 관계를 형성한다.

소설담론이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갖는 대화관계가 잘 드러나는 소설을 바흐친은 다성적 소설(Polyphonic novel)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소설담론은 외적 주체로서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적 주체인 작가와 독자는 내적 주체로서의 등장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처럼 다중적 조직성을 갖는 소설담론은 내적, 외적 층위의 분화를 통해 대화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의 담론은 담론 그 자체의 언어학적인 특성이나 구조보다는 그러한 담론을 작가가 어떻게 소설적인 맥락에 어울리게 조정하는

가 하는데 따라 소설담론으로서의 의미가 규정된다. “문제는 순수한 언어학적 가치기준에 따른 특정한 언어스타일, 사회적 방언 등의 존재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떠한 대화적 각도에서 대비되거나 대치되는가에 있다.”²²⁾

그러면 바흐친 상정한 다성적 소설을 대화적 담론을 통해 살펴보자.

(전략)

그와 같은 인물에게는, 그러한 가페라든 하는 곳에서 이름도 모를 양주를 몇 잔 대접하느니, 오히려, 어디 콘 요릿집으로라도 하룻밤 모셔 가는 것이 얼마나 낯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한 의견을 내어 놓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어쩌면, 나 먹은 한약국집 영감에게는 인연이 멀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러한 오색등불 휘황한 곳이, 은근하게 그의 마음에는 기뻐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발소 주인의 말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면, 사실 그럴 상도 싶었다. (후략)

- 「천변풍경」 중에서 - 23)

위의 예문에서 소년(재봉)의 의견은 동네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즉, 소년은 동네 사람들과의 동일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인식의 공유를 하고 있다. “오히려, 어디 콘 요릿집으로라도 하룻밤 모셔 가는 것이 얼마나 낯설는지 모르겠다”와 “어쩌면, 나 먹은 한약국집 영감에게는 인연이 멀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러한 오색등불 휘황한 곳이, 은근하게 그의 마음에는 기뻐을지도 모르겠다”와 같은 자유간접화법²⁴⁾을 통해 타자들(동네사람들)의 말이 화자의 관념 속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 말들은 화자의 의식에 응답성을 통한 내적 논쟁을 야기하기보다는 화자가 타자들의 말에 공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바흐친이 상정한 의미에서의 대화적 담론이 아니다. 대화적 담론은 타자의 말

22) M.M.Bakhtin, 김근식 옮김(1988), 앞의 책, 264쪽.

23) 박태원, 「천변풍경」, 한국해금문학전집간행위원회(1989), 『한국 해금 문학 전집3: 박태원 I』, 삼성출판사, 58쪽.

24) 자유간접화법은 인물의 화법을 화자가 중개하는 경우로, 인물의 시점과 화자의 시점이 뒤섞인 ‘이중적인 서술상황’을 드러낸다.

이 화자의 의식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온 타자의 말에 대해 화자는 계속적으로 응답을 통한 내적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의식체계를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처럼 타자의 말에 대해 화자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양상의 담론은 종결성을 지향하기에 자신의 신념체계의 파괴, 일탈을 지향하는 대화적 담론과는 거리가 있다.

(전략)

“그까짓 일이십만원 더 생긴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구…….”

“뭐라구?”

“관뒤.”

“관뒤? 나만 돈벌레 악덕 집주인 만들어 놓고 관뒤?”

“제발 좀 관뒤.”

“당신이야말로 제발 좀 관뒤! 제발 좀 관뒤란 말이야!”

영겁결에 나온 소리였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윤영은 보았다. 그러나 더욱 창백해져 있는 것은 윤영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레 아무런 계산 없이 그런 말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윤영이었다. 그러나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는 말이었다. 이미 내뱉어진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렇다.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긴 했으나, 어쩌면 가슴에 맺힌 돌맹이 같은 말이 아니었던가. 어쩌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하고 싶었을, 차마 내뱉을 용기를 내지 못해 매일같이 가슴에 걸려 오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내내 불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언제라도 가장 열렬히 하고 싶었을……. 그랬다. 그 말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둘 사이의 내정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후략)

- 「당신」 중에서- 25)

이 소설은 생활의 고난을 둘러싸고 남편(전교조원)과 아내(윤영) 사이에 전개되는 신념일탈의 양상(논쟁적 어조를 통한 폐쇄성으로서의 신념 파괴)을 보여준다. 서로 “제발 관뒤”라고 상대방에게 말함으로써 상호간에 공유된 신념이 아니라, 논쟁을 통한 자기 신념의 파괴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논쟁적 양상의 말은 “가슴에 박힌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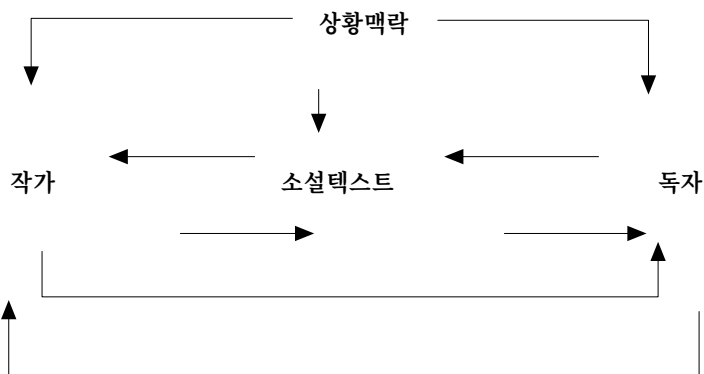
땀이 같은 말”이 되고, “차마 내뱉을 용기를 내지 못해 매일같이 가슴에 걸려 오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내내 불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언제라도 가장 열렬히 하고 싶었”던 말이다. 이 말들은 서로에게 침투하여 서로를 상처내는 말이 되며, 화자들은 늘 서로를 염두에 두게 된다.

아내(윤영)는 자기내부의 소시민성을 무의식적 주체(타자성)를 통해 발견하며, 이 발견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에 각인된 남편(타자)의 존재를 깨닫고, 끊임없이 이에 저항한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공유된 신념(기의)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된 신념은 잠정적 화해 모습을 취한 채 끝없이 연기되고 있다. 이는 끝없는 기의의 연기를 통한 타자성의 깊은 각인의 흔적이다.

이처럼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주인공의 신념이나 그 신념을 허무는 현실의 논리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대화적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내면적 대화성은 타자의 말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 소설의 현실성 역시 외면적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는 내면적 대화적 관계에 의해 얻어진다. 이 소설에서 인물들은 단순히 단일한 관점으로 외부현실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대화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들의 내면적 관계를 통해 현실성을 드러낸다. 외부현실에서 행동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관념을 고집하는 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타자의 말들이 내면에 침투하여 그 관념을 무너뜨림으로써 보이지 않던 현실을 보이게 만든다.²⁶⁾

한편 외적 층위에서의 소설담론의 일차적 주체인 작가와 독자는 소설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게 되며, 이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에 타자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26) 나병철(1996,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321-347쪽.



소설담론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소설 담론의 일차적 주체는 작가와 독자(학습자)이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작가와 독자는 자신들의 의미구성에 각자의 담론(텍스트)을 연합시킨다²⁷⁾. 먼저 작가와 소설텍스트 사이의 상관성을 검토해 보자. 소설담론의 의사소통 구조에서 외적 주체로서 작가는 담론 실천과정에서 일차적인 텍스트 생산자이다. 작가가 텍스트를 생산한다는 것은 타자성을 배제한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설담론 주체로서 독자와의 상관 관계를 전제한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의 소설담론 생산을 통해 자신의 일상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소설담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굴절된다는 의미에서- 한다. 그러나 작가가 자신의 소설담론을 구성할 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소설담론에 투영하지만, 이때 작가가 투영하는 이데올로기는 소설담론 속에 완전히 전이되지는 않는다. 즉, 작가의 의도와 소설담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작가가 갖는 이데올로기도 그 자신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데올로기 담론체계(구성체)를 수용한 ‘내적 대화’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소설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문학적 의사소통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소설담론을 매개로 독자와의 간접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

27) Robert Hodge(1990), *Literature as Discourse*, Basil Blackwell, 48쪽.

며, 독자가 이데올로기 체계에 의해 영향받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소설담론에 대한 또 다른 독자가 되기 때문이다.

독자는 소설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작가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담론의 주체로서 다른 주체들과 대화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독자는 소설담론이 전해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독자는 소설담론의 이해·해석 과정을 통해 소설담론의 이데올로기를 가치 평가적으로 수용한다. 즉, 독자는 소설담론의 이해·해석 과정을 통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소설담론의 이데올로기와 마주치고, 소설담론이 생성한 이데올로기와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독자는 자신의 상황맥락 속에서 늘 타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 타자 지향을 통해 타자들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구성체와 상호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독자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지평 안에서 제한된 정도로만 소설담론에 나타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거부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소설담론에 대한 가치평가적 액센트를 갖게 됨으로써 소설담론에 대한 규정력을 갖게 된다.

학습자가 소설담론에서 이데올로기를 인식하고 가치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비평적 읽기’²⁸⁾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를 통해 학습자는 상황맥락 속에서 소설담론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소설담론이 갖는 상호 텍스트성, 타자성, 내적 결합관계 등을 고찰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소설담론을 읽고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²⁹⁾. 학습자가 소설담론에 형상화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판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비판하고 가치평가 하는 것은 소설담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학습자 자신을 스스로 정립하는 가치관의 내면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소설담론에 전개된 이데올로기적 양상을 수용하든,

28) ‘비평적 읽기’는 문학적 의사소통 모델의 요소가 갖는 상황맥락 내에서의 읽기라고 할 수 있다.(Gram Atkin et al(1995), *Studing Literature : A Practical Introduction*, Harvester Wheatsheaf, 101쪽.)

29) Stephen Tchudi / Diana Mitchell(1999), *Exploring And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156쪽.

수용하지 않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성을 획득하는 소설교육의 주체로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소설교육의 주체로서 학습자는 소설담론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가치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설담론에 드러난 의미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일시와 비동일시”³⁰⁾의 어느 한 지점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동일시와 비동일시는 해체론적 관점에 의하면 위계적·대립적 구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각기 서로를 보충하면서 각각의 내부에서 상호 연결된다³¹⁾. 학습자는 소설담론의 이데올로기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소설담론의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해 가거나, 소설담론의 이데올로기와 자신을 비동일시 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IV. 초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소설교육의 지향점

바흐친의 초언어학적 관점을 소설담론에 원용해 본다면, 소설담론은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대상으로서 그 자체가 문화실천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실천의 한 양태로서의 소설담론은 독백적 담론의 형태가 아닌 문학주체들의 개입과 그 주체에 대한 타자들의 끊임없는 침투를 허용하는 대화적담론이 되어야 한다. 소설담론이 대화적 담론이 되어야만 텍스트 내적으로는 인물들 간에 상호주관성을 통한 가치평가적 태도가 학습자에게 형성되고, 텍스트 외적으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문학교육에 스며들 수 있다.

이처럼 초언어학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소설교육에 접근한다면, 소설교육은 제도교육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혁신, 타

30) M.Pecheux(1975), *Language · Semantics · Ideology*, St.Martin Press, 191- 194쪽.

31)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이경훈 옮김(1994),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사, 47쪽.

자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소설교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설담론을 대화적 담론으로 상정하고서, 소설담론을 텍스트 내·외적으로 그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소설교육은 생활문화로서의 소설교육이 될 수 있다. 생활문화로서의 소설교육은 일상적 삶의 방식인 이데올로기와 필연적으로 연관을 맺게 된다. 소설교육이 일상적 이데올로기와 연관을 맺게 되는 지점에 소설교육이 문화 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데 문화 장에서의 소설교육은 기존 문화형태를 전수하는 데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 장에서의 소설교육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화 양태이며, 기존의 문화를 전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재생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문화 장에서의 소설교육은 문화를 재생할 뿐만 아니라, 이 문화에 의해서 다시 규정받는 역동적 작용태이다.

물론 문화 장에서 문화 재생산으로서 소설교육을 보는 관점은, 소설교육을 수업단위별로 완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설교육은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완성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바람직한 소설주체’의 형성을 위한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삶의 현상들이 완결이 아니라 차연이며 끝없는 흔적이라는 해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말이다. 이 관점은 소설교육을 통해 얻을 것이 ‘지금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바람직한 소설주체’의 모습이란 그 자체 완결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자기갱신을 이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이다.³²⁾

소설교육은 작가, 소설텍스트(담론), 학습자(독자)가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서로에 대한 타자성을 갖고 상호연관 관계를 유지하는 의사소통 체계 내에 이루어지는 담론구성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소설교육은 단순히 소설담론(텍스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소설담론의 생산자와 수용자, 그 외부환경(사회적·문화적, 정치적 환경

32) 이 관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줄고 「문화실천과 소설교육의 철학적 기초」(선주원(2000), 『한국어문교육』 제 9집)을 참고하기 바람.

등) 등의 역동적 작용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담론은 작가, 소설텍스트, 독자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맥락에 의존해서만은 완전한 의사소통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적 상황맥락은 소설담론의 내적 맥락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다만 구조적 상동성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설담론의 온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소설담론의 내·외적 상황맥락에 대한 동시적 통찰을 통한 다성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천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대화적 담론으로서의 소설담론을 통해 사회문화적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소설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소설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들은 여러 변인들의 총체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여러 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인은 물론 소설주체 변인이다. 소설주체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설담론의 생산자인 작가, 소설담론의 수용자이면서 비판자로서 문화실천 및 재생산을 행하는 학습자, 소설담론의 생산자와 수용자에 대한 중개자로서의 교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작가, 학습자, 교사 등의 변인을 고려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문화실천 및 재생산으로서의 소설교육의 교육과정의 모델을 생각해보자.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실천 및 재생산 관점	
소설교육의 목표	문학적 문화의 고양, 상상력의 발달, 삶의 총체적 체험, 문화실천 및 재생산
텍스트관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서의 소설담론
학습자관	타자성을 의식하는 가치관의 내면화 존재로서의 문화 주체
이론적 틀	해체론 및 포스트모더니즘
교육내용 구성의 원리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소설담론을 비판하고, 해체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교수-학습 방법	주체적인 소설담론 비판을 통한 문화실천 및 재생산 행위로써 해체적 글쓰기
분석단위	소설담론의 생산과 수용의 장인 문화공동체

<문화실천 및 재생산으로서의 소설교육과정>³³⁾

이 모델은 소설교육을 해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도출된 것으로, 문화 장에서의 문화 실천 및 재생산을 통한 문학능력의 증진을 소설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상정한 것이다. 소설교육 주체로서 학습자의 문학능력 증진은 수업현장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학습자의 문학능력 증진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기에, 문학능력의 증진은 증진을 지향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설교육은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에 최종적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문화 주체 형성을 그 도달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의 차원을 통한 가치관의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다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현재로서 만족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바흐친의 초언어학적 관점에 의한 대화적 담론으로서의 소설담론을 통한 소설교육은 결국 ‘문학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그 완성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다. 물론 ‘문학능력의 증진’이 문학교육의 최종적 지향점인듯이, 이는 소설교육의 최종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소설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소설적 능력이 증진된다는 관점을 취했다.

V. 결론

소설담론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를 통해 삶의 현실을 반영·굴절시킨 담론으로 주체들의 개입을 전제로 하며,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관성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평가적 액센트를 형성해 간다.

33) 이 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의해 문학교육과정을 상정한 관점을 원용하여 만들었다.(우한용 외(1997),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317-326쪽.)

그런데 이러한 소설담론은 단지 작가, 소설텍스트, 독자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맥락에 의존해서만은 완전한 의사소통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적 상황맥락은 소설담론의 내적 맥락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담론의 온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소설담론의 내·외적 상황맥락에 대한 동시적 통찰을 통한 다성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천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은 각자가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항상 타자를 염두에 두는 관계에 있으며, 이 타자성을 통해 각자의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타자성을 통해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은 자신의 의미영역(이데올로기 체계)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작가, 독자에게 영향을 준다.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이 작가, 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담론체계를 통해 제 2의 독자로서 작가에게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촉발한다. 그리고 독자는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을 자신의 인식 지평의 영역 내에서 이해·해석을 하지만, 내적 주체의 담론체계와의 상호소통과정을 통해 소설담론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 재생산을 소설교육적 차원과 연관시켜 말해본다면, 학습자가 단순히 소설담론을 이해·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설담론의 인물들과 끊임없는 내적 대화(은폐된 논쟁, 혼성 등의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소설담론(해체적 관점에서 글쓰기)을 생산한다.

따라서 가치평가적 액센트를 갖는 소설담론을 교육하고자 하는 소설교육은 담론구성체들의 장(場)들이 갖는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해·분석하며, 해석하고 평가하는데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의 소설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소설담론을 재생산하는 문화활동으로서의 소설교육을 최종 지향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설교육은 작가, 소설텍스트(담론), 학습자(독자)가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서로에 대한 타자성을 갖고 상호연관 관계를 유지하는 의사소통 체계 내에 이루어지는 담론구성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소설교육은 소설교육 자체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소설담론을 이해하

고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고, 문화실천 및 재생산하는 행위로서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설교육은 소설담론의 분석을 통한 개별적인 사실의 확인과 해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고 가치관의 내면화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치관의 내면화란 완결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가치관의 대화적 관계에 놓여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성적 소설담론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관을 내면화하는가에 대한 고찰은 추후로 미룬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김인숙(1993), 『칼날과 사랑』, 창작과비평사.

한국해금문학전집간행위원회(1989), 『박태원 I』, 삼성출판사.

2. 국내·외 논저

구인환 외(1988), 『문학교육론』, 삼지원.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상욱(1996),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중신(1997),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나병철(1997),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이경훈 옮김(1994),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사.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1992),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사.

선주원(2000), 「문화실천과 소설교육의 철학적 기초」,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편, 『한국어문교육』 제 9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재찬 외(1997),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Gram Atkin et al(1995), *Studing Literature : A Practical Introduction*, Harvester Wheatsheaf.

M.M.Bakhtin, Edited Michael Holpuist and Vadim Liapunov(1990), *Art and Answerability*, University of Texas Press.

M.M.Bakhtin, Translated by Ven W.Mcgee(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University of Texas Press. M.M.Bakhtin, 김 근식 옮김(1988), 『도스토예프스키 詩學』, 정음사.

M.M.Bakhtin, 송기한 옮김(198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M.M.Bakhtin, 전승희 외 옮김(198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M.M.Bakhtin, 최현무 옮김(1988), 『바흐친: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M.Pecheux(1975), *Language · Semantics · Ideology*, St.Martin Press.

Robert Hodge(1990), *Literature as Discourse*, Basil Blackwell.

Stephen T chudi / Diana Mitchell(1999), *Exploring And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3

<초록>

초언어학과 소설교육의 지향점 연구

선 주 원

소설담론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를 통해 삶의 현실을 반영·굴절시킨 담론으로 주체들의 개입을 전제로 하며,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관성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평가적 액센트를 형성해 간다.

이러한 가치평가적 액센트는 소설담론의 내·외적 상황맥락에 대한 동시적 통찰을 통한 다성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천착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은 각자가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항상 타자를 염두에 두는 관계에 있으며, 이 타자성을 통해 각자의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타자성을 통해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은 자신의 의미영역(이데올로기 체계)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작가, 독자에게 영향을 준다.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이 작가, 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담론체계를 통해 제 2의 독자로서 작가에게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촉발한다. 그리고 독자는 소설담론의 내적 주체들을 자신의 인식 지평의 영역 내에서 이해·해석을 하지만, 내적 주체의 담론체계와의 상호소통과정을 통해 소설담론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 재생산을 소설교육적 차원과 연관시켜 말해보자면, 학습자가 단순히 소설담론을 이해·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설담론의 인물들과 끊임없는 내적 대화(은폐된 논쟁, 혼성 등의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소설담론(해체적 관점에서 글쓰기)을 생산하는 것이다.

소설교육은 작가, 소설텍스트(담론), 학습자(독자)가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서로에 대한 타자성을 갖고 상호연관 관계를 유지하는 의사소통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론구성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소설교육은 소설교육 자체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소설담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고, 문화실천 및 재생산하는 행위로서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aiming point of metalinguistics and teaching novel**Seon, Ju-won**

Novel discourse assumes the intervention of subjects within a discourse reacting, reflecting realities of life by language, make active estimation of value accent on realities of life as a reciprocal autonomy within subjects.

This estimation of value accent can be understood by a research on the polyphonic ideology with simultaneous discernment on the inner and outward context.

Inner subject of novel discourse, each keeps peculiarity, is related to the others always, can make autonomy of each by this otherness. Inner subject of novel discourse extends significance(ideology system) of each by otherness, affects writer, reader constantly. Inner subject of novel discourse isn't the object prescribed one-sidedly by writer and reader, is stirred ideologic changes to the writer as a second reader with his discursive system. Reader reconstructs novel discourse by reciprocal understanding process with discursive system of inner subject, but understands, interprets inner subject of novel discourse within domain of his cognitive horizon. If we say reconstruction related dimension of teaching novel, say that a learner constructs new novel discourse by constant inner dialogue with characters of novel discourse(inner dialogues made by formation of hidden arguments, mixtures), cross dimension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of novel discourse.

Teaching novel should be understood as a formation discursive made within understanding system that keeps reciprocal relation with otherness to each other, keeps each-peculiarity of writer, text(discourse), learner(reader). Teaching novel must be that a learner constructs meaning himself by activity of understanding, interpreting on the novel discourse by curriculum of teaching novel, must be a place of education as activities with cultural practice and reconstruction.